

부산파라미타 출범



부산파라미타가 4월 12일 본격 출범했다.

부산파라미타정소년협회(총재 정여)는 4월 12일 오전 10시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 및 신입생 환영회를 갖고, 중·고등학생 약 600여 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2008년 활동영상 감상을 시작으로 신규파라미타지도자 위촉장 수여, 백명속 협회장 인사말, 총재 정여스님 인사말, 1분화재 1지킴이 활동 설명회, 화합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부처님을 믿는 우리 파라미타 학생들이 마음을 내어 돕는다면, 온 세상이 맑고 청정해질 것"이라고 설법했다. 박지원 기자

부처님오신 부산·울산 축제 한마당

부산 5월 1일 전야제·울산 2일 법요식에 이어 순례여행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부산, 울산 각 사찰에서는 봉축법요식과 다채로운 축제로 부처님의 법음을 온 누리에 전하려는 준비가 한창이다.

범어사(주지 정여)는 5월 1일 오후 6시 부처님오신날 전야제를 시작으로 2일 오후 2시 법요식, 오후 4시부터 문화한마당, 이어 오후 6시 점등식을 갖는다.

통도사(주지 정우)는 4월 25일부터 경내 곳곳에서 장엄등경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부처님오신날까지 7일 정진기도에 들어간다. 하루 전인 5월 1일에는 신명마을 일대에서 제등행렬을 펼치고, 등불을 밝힌 야간 보행로를 개방한다. 5월 2일 오전 10시 보궁한라대 및 법요식을 봉행한다.

삼광사(주지 화산)는 4월 24일 오후 6시 30분 봉축 점등대법회를 시작으로, 26일 오전 10시 삼광 학생예능대회, 5월 1일 오후 6시 30분



불교 최고의 축제 부처님오신날 준비에 모든 사찰이 분주하다. 사진은 지난해 삼광사 모습.

봉축 전야대법회, 부처님오신날인 5월 2일 오전 11시 봉축 기념법요식을 봉행한다.

공덕원(주지 효선)은 4월 25일 현 등공양 축원기도 임재를 시작으로 5월 2일 오전 11시 봉축대법회와 봉축법어, 관육의식 등을 봉행한다.

동명불원(주지 정산)은 4월 27일 오후 6시부터 옹호동, 용당동, 대연동 일원에서 지역교포의 일환으로 연꽃등 나눠주기 행사를 펼친다. 이어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에는 점등식 및 신도가족 어울림한마당, 흥승스님의 사찰음식 점심 뷔페를 마련

한다.

미타선원(주지 하립)은 5월 2일 오전 10시 봉축법요식을 갖는다.

영주암(회주 정관)은 4월 25일 오후 7시 점등식, 5월 2일 오전 11시 법요식을 봉행하고, 오후 7-9시 제등행렬을 진행한다. 영주암을 출발해 망미동 부산은행, 병무청을 경유해 다시 영주암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울산 해남사(주지 만최)는 5월 2일 오전 10시 초파일 법요식을 봉행하고 이어 오후 2시부터 초파일 공양제, 점등식, 통도사로 떠나는 마음여행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4월 25일 오후 7시 주지 심산 스님의 마을상좌수계식, 5월 2일 오전 11시부터 법요식, 관육, 성년의식 등이 봉행된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대웅보전에서 축제한마당이 벌어진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불국토를 찾아서

해운대 정해학당

“문답으로 불교 깊은 뜻 이해해요”

오늘은 정해학당의 <원각경> 첫 강의를 있는 날. 수업 5분 전, 범상치 않은 외모의 학생들이 모여들어, 어느 한 사람 자세에 흐트러짐 없이 마음을 정돈하고 있다. 드디어 앞으로 3개월간 <원각경>의 길로 이끌어줄 오경스님(사진)이 단상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경전공부는 기본, 참선수행, 다례를 선택해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당초 10명 정도를 예상했지만, 그보다 3배 가까이 많은 30여 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직업군도 주부부터 회사원, 교수, 기업CEO, 한의사 등 다양하다.



한재 대학원 교수로 일하는 제미경(50)씨는 “불교공부를 할 곳을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오게 됐는데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또 부산의 한 중학교 교장 김

오경 스님은 “공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으로 재미를 붙이기까지가 힘들뿐 공부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라며 “처음엔 생소한 단어들 탓에 어렵겠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곧 이해할 수 있으니 끈기와 인내를 갖고 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원각경>은 제목만 들어서는 쉬운지 어려운지 짐작할 길이 오지 않는 생소한 주제다. ‘참선’은 이미 대중화돼 많은 불자들이 쉽게 따라하고 있지만 사실 그 바탕에도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행해 자성불을 찾길 원한다면 반드시 경전공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이렇듯 수준 높고 어려운 불교 경전을 바른길로 정확하게 안내한다.

또한 대중강의나 설법이 아닌 지도법사와의 문답과 대화를 통해 강의해 보다 깊이 있고 바른길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다. “두루뭉술하게 알듯 모를 듯 넘어가면 개인의 한계를 어슬히 드러내, 현대적인 언어로 난장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타종교, 인문예술인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매주 토요일 함께 차를 마시며 교류를 하는 장도 마련된다. 정해학당은 단순한 강의실도 사찰도 아닌, 종교와 인문, 사회 담론이 살아있는 공간인 것이다.

중속(53)씨는 “초등학교 한문만 알던 된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수강하게 됐다”며 “<화엄경><금강경> 등 경전들의 이름은 많이 들어왔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몰라 답답했는데, 기초를 뒤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수강하는 정현구·김정숙 부부는 “절이 아니라서 공부하는데 더 부담이 없다”며 “그간 혼자서만 하던 경전공부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정해학당에서 공부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30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불교관련 서적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오경 스님이 그간 모아온 책들을 3칸의 서재에 비치해두고 개방했다. 운이 좋다면 스님이 느낀 점들을 꼼꼼히 메모해 놓은 오래된 기록도 함께 발견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정해학당의 정해는 정혜(定慧)가 아닌 정해(正海). 경전 공부로 지혜의 바다를 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예불이나 기도보다는 경전에 충실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정해학당이다. (051)744-5322 박지원 기자

“행복하고 싶다면 불교 공부하세요”

목종 스님 해운대에 대광명사 개원... 각종 강의 운영

“불 법은 자기 공부에만 그치지 않고 바르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신행과 교육, 봉사과 복지, 문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시스템을 갖춘 도량이 되어 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반야원의 주지 목종 스님이 해운대 중동 로데오아울렛 3층에 대광명사라는 새 이름으로 도량을 개원하고 4월 18일 오후 2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목종 스님(사진)은 “봄이 온다고 해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야 비로소 봄이 온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지만 매순간 고마운 인연을 만났기에 개원할 수 있었다”며 “모든 신도님들과 대광명사라는

새로운 도량을 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스님은 약 4년 전 대광명사의 전신인 반야원의 주지 소임을 맡을 당시, 부처님도 안 계신 법당을 찾는 신도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현재 등록된 신도만 2000여 명. 팔묵할 만한 성장에 뒷받침한 포교의 방편은 불교대학과 회보, 봉사활동 등에 있다. 이에 더욱 넓어진 새 도량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 효율성은 물론 신도들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주 법당으로 수행과 기도를 하는 대광명전, 강의와 법회를 열 수 있는 교육관인 극락보전, 참선수행을 위한 참선방,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도실 등을 마련했다. 또 일일 가족법회를 신설하고, 한층 새로워진 신행활동에 들어갔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닷맞이언덕 가족즐거이

상법회, 넷째 주 일요일은 동백섬을 일주하는 3보1배 법회가 열린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주생명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바로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불교거든요. 행복하길 원한다면 불교를 공부하러 오셔야죠.” (051)742-7610 박지원 기자



4월 10일 남해서 열린 경로잔치.

미륵사 미륵대불 이전 점안

제2회 산사음악회도 열려

영도 미륵사(주지 혜정)는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미륵광장에서 미륵대불 이전점안법회 및 제2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미륵사는 봉래산 중턱에 있던 미륵대불을 절마당으로 이전점안하면서, 사찰명을 미륵암에서 미륵사로 개칭했다. 이번 법회는 미륵대불이전 기념

및 신도회장 취임법회로 발원문 낭독, 경과보고, 공로패 전달 및 임명장 수여, 법어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불자가 수 장진 사회로 제2회 산사음악회로 축제 한마당을 벌였다.

박지원 기자

삼미철강 김일운 대표 남해서 경로잔치

효 사상을 기리는 울산시 유주군 청량리 (주)삼미철강 김일운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인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서 4월 10일 경로잔치를 열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어르신들은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지방보살본원경>을 읽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김 대표는

작고한 부모님에 대한 보답으로 작은 잔치를 마련했다.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 모두가 다 내 부모님이라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잔치다. 또한 남해 미륵암 청은 스님의 법문에 따라 남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며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청은 경남남부지사장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지등 승강장치\_대구 장성사



연등 지등 승강장치\_서울 화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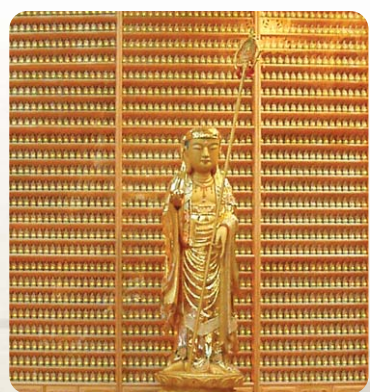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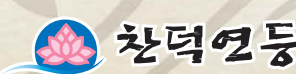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전등



종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